

경기도 예산 세밀한 결산심사 약속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개선방안 위원회 보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20일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 운영뿐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

인 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에 집중했다.

먼저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성과목표 및 성인지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달성도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사용으로 사업목적에 충실히 달성됐는지 등을 심사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라며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이 결산심사를 대하는 안이한 자세를 질책했다.

또한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 형식적인 성과분석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들과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파악을 위한 결산개요서 작성 방식 변경,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보조사의 관리방식 개선 등 위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미연 위원장은 "최근 부동

산 시장의 악화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경기도의 전략적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결산심사가 2024년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의 밑거름이 되는 환류의 장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결산심사 기간뿐 아니라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효과 측정은 물론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인창 기자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 격려 행보

인천시의회, 지역 안보 강화 지역 군부대 방문 감사 전담

인천시의회가 지역 안보 강화 및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인천시의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복락·박종혁 제1·2부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과 20일 두 차례 걸쳐 지역 내 군부대를 방문, 부대 지휘관 및 장병들을 격려하고 부대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대 장병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계획된 인천시의회 차원의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행보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우선 지난 7일 1차로 수도권 유일의 해상방위 부대인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찾아 인천해역의 안보를 당부했다.

이어 2차로 20일에는 지역 책임 부대인 '육군 제17사단'과 임전부대의 특전 부대를 표방하는 '제9공수특전여단'을 각각 방문해 지역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격려금을 지



인천시의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7일과 20일 두 차례 걸쳐 지역 내 군부대를 방문, 부대 지휘관 및 장병들을 격려하고 부대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급했다.

허식 의장은 "안보는 국가의 근간이며, 연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특히, 서해5도와 강화도 등 접경 지역을 가진 인천지역 안보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국토방위는 물론 지역사회 안

전을 책임지고 각종 재난·재해 시 대민 지원에 앞장서 온 군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함께 협력함과 동시에 인천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단으로 동행한 제1·2부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최근 군부대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 등 장병들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

다"며 "낮은 환경에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부대 차원에서 조금 더 관습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인천시의회의 지역 군부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계기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중삼 기자

의회 의회 단신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민주당, 의정부4·사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회를 통과해 도민이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오 의원은 "최근 도정 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난 해결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도민의 주차 불편을 다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ICT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인창 기자



또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은 주차정보를 활용한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주차정보는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를 수집해 주차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는 제공된 주차정보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플랫폼 사업을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이용 편의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8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인창 기자

공직자 과다출장 관련 입장문 발표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21일 최근 의회 공직자 과다 출장 논란과 관련해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강 의장은 이날 제321회 정례회 폐회 후 '하남시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통해 "의회 공직자의 과다 출장과 관련한 내용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과다 출장이 시민 여

러분의 이해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하남시 감사관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본 사안을 처리해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직자 강을 엄정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직제 규칙과 내부 결재 시스템 보완 및 철저한 복무 실태점검 강화를 약속했다.

구학모 기자

무상교복사업 탁상행정서 벗어나야

김일중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김일중(국민의힘, 인천1·사진) 의원은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지원사업 미집행잔액 11억8000만 원에 대해 질의하며 최근 3년간 매년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도한 예산 증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들이 어떤 옷을 입고 등·하교하는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심지어는 더 이상 불편한 교복을 입지 말라는 권고가 있을 정도로 교



복의 품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교복지원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응징정책국장은 "신입생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협회의 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하며 "교복과 관련된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품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창 기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 촉구

남양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민간 의료기관 차별 심각"

남양주시의회가 20일 제295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 촉구건의안'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 의료 환경은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민간 의료기관마저 경기도 남부와 서울에 집중돼있는 현실로 인해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긴박한 상황과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 속에 수많은 사망자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경험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 안정적인 공공의료 기반의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경기 동북부권의 공공의료

기관 설립은 '최소한의 필수 공공의료 확보'라는 절박함 속에서 건의하는 사항"이라고 밝히며 "탄탄한 교통 인프라와 지속 가능한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배후인구 포함 130만 거주지역인 남양주시에 대한 공공의료 수요 측면을 적극 고려할 것" 등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경기도·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형실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 박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 촉구건의안'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목소리

상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양주시의회는 20일 오전,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하고 올해 상반기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대로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1년 국회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위한 생활밀접 사무의 지방이양 및 단계적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을 골자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다.

'자치분권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렸지만 지방의회에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다.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감시기능과 정책 입안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 강화는 선결조건이다.

윤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추경안 오늘 최종 의결

상임위서 7억2천만원 감액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강화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예결위는 기정예산액 3조1094억원에서 2593억원 증액해 3조3687억원으로 편성·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7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 후 수정가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1200만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활용 시정홍보(2000만원) △현충탑 부설주차장제 시스템 교체(1950만원) △선진지국 벤치마킹(360만원)이다.

또한 감액한 주요 사업은 △수원시 기

업인의 날 행사(4000만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2억5000만원)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개발(3000만원)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6000만원) 등이다.

이밖에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건전재정 확보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며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희영 기자

동주염전 체험장 현장활동 실시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20일 단원구 대부분의 다목적 연수시설 부지와 동주염전 체험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송바우나 의장이 방문한 대부분 다목적 연수시설 부지는 안산시가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매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해 놓은 상태이며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공사의 경우는 지난해 2월 공사가 시작돼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 의장은 이날 두 곳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상황과 공사 진척도 등을 파악한 뒤 시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승수 기자

송 의장은 대부분 다목적 연수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필요한 모든 의결을 거쳐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인데, 매입 당시 관련 공무원을 고발한 것은 매입을 승인한 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본다"며 "또한 매입 당시 공무원을 고발한 해놓고 해당 부지에 대해 사실상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채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안산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동주염전 체험장과 관련해서는 "공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하자 없이 완벽하게 체험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승수 기자